



손 운 목

1989년도 대한기생충학회 춘계 학술발표회가 지난 4월 28일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저녁에 있을 리셉션에도 참가할 겸,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도 구경할 겸하여 이번 학회의 스폰서격인 허선 선생과 함께 조금 일찍 춘천으로 향하였다. 경춘선 무궁화호 차창으로 보이는 북한강 중류의 푸른 물과 파릇파릇한 풀빛이 맑은 날

씨와 조화를 이루면서 전개되었다. 민속음식점에서 춘천의 명물인 막국수와 감자부침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한림대학교로 향하였다. 을씨년스럽게 운동장에 나와 앉은 책걸상들이 이 학교 학생소유의 현상태를 대변해 주는 양 하였고, 조용한 가운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놀고 있었다.

한림대학교는 그 당시 현시대적인 열병인 학생시위로 인하여 휴교조치가 내려진 학교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결국 학술발표회도 교내에서 할 수 없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

학술발표회 및 리셉션 장소인 춘천 세종호텔은 호텔이라기 보다는 규모가 큰 산장과 같은 느낌이었다. 호텔의 속성이랄 수도 있는 화려함은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리셉션장은 호텔의 별채에 마련되어 있었고, 그 옆 분수대 근처 야외에 각테일용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학회 회원들이 한명 두명 모여들자 조용하던 호텔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오후 6시 반부터 약 30분간 각테일 파티가 있었고, 이어서 뷔페식의 저녁식사를 결들인 리셉션이 시작되었다.

학회장 조승열 교수의 인사말이 있었고, 한림대학교 현승중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

졌다. 그후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오신 강태경 선생의 소개가 있었고, 삼삼오오 원탁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과 맥주를 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리셉션이 끝난 후, 모처럼 뽀뽀한 학교

장 인사가 있었고, 바로 오전 연제 발표 및 토의에 들어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연제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제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오전에 17연제가 발표되었고, 점



66

이질아메바 배지 내에 공존하는 원충 또는 세균은 자체로는 간농양을 형성하지 못하나 이질아메바의 농양 형성에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99

생활 및 연구활동에서 벗어난 회원들이 보다 재미있는 춘천의 밤을 기대하면서 삼삼오오 헤어졌다. 아마 이날 우리 학회원들로 인하여 춘천시내 주류 소비량이 조금은 늘어났으리라!

학술발표회날 아침, 맑은 날씨와 신선한 공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쾌하였다. 오전 9시경부터 회원등록에 이어 개회 및 회

심식사후 오후에는 경북의대 최동익 교수의 특별강연과 4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발표된 21편의 연제중, 흡충류에 관한 내용이 8편(38.1%)으로 가장 많았고, 원충류 7편(33.3%), 곤충 3편(14.3%), 선충류, 조충류 및 윤충일반에 관한 내용이 각각 1편씩이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연제의 제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연제는 “이질아메바 배지 공존 세균이 아메바성 간농양 형성에 미치는 영향”(원광의대 기생충학)인데, 이질아메바 배지내에 공존하는 원충 또는 세균이 그 자체로서는 간농양을 형성하지 못하나 이질아메바의 농양 형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공존세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었다.

두번째는 “만성 설사 환자에서의 장내 아메바 검출상의 비교”(경북의대 기생충학)인데, 대구지방에서 이질아메바가 예나 지금이나 별 변화없이 만성설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이었다.

세번째는 “*Naegleria fowleri*에 특이한 단세포균 항체의 반응 부위에 대한 전자현미경적 관찰”(연세의대 및 한양의대 기생충학)이었고, 네번째는 “마우스에서 비장 세포 및 항혈청 주입후 *Naegleria fowleri* 감염에 대한 면역효과”(한양의대 기생충학)이었으며, 다섯번째는 “실형적 *Acanthamoeba* 수막뇌염에서 세포 매개성 면역에 관한 연구”(연세의대 기생충학)이었다.

여섯번째는 “*Toxoplasma gondii*의 시험관내 배양에서 ADP-ribosyl transferase antagonist와 cyclic AMP의 영향”(가톨릭의대 기생충학)인데, *Toxoplasma*의 숙주 세포내 증식에서 분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시사된다고 하였고, 세포내 CAMP의 수준 유지가 *Toxoplasma*의 증식에 필요한 인지라고 하였다.

일곱번째는 “주폐포자충(*Pneumocystis carinii*)에 의한 간질성 폐렴에 대한 실험적 연구”(충남의대 기생충학)이었고, 여덟

“[한국의 폐흡충증]
이라는 특별강연 에서는
다양한 폐흡충증의
세부 증명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번째는 ‘Immunoblot을 이용한 아나사키스증의 혈청학적 진단’(고려의대 기생충학)이었으며, 아홉번째는 近交系 BALB/C 및 nude마우스 腹腔 渗出細胞와 血清의 肝吸蟲 感染에 대한 免疫 應答”(경북의대 기생충학)이었다.

열번째는 “간흡충 치료제 투여에 따른 숫쥐 비뇨생식기에 있어서 -glucuronidase의 활성치에 관한 연구”(부산의대 기생충학)이었고, 열한번째는 “간흡충 감염자 검출을 위한 효소연결성 면역흡착 검사의 선별 검사로서의 의의”(충북의대 기생충학 및 내과, 중앙의대 및 고려의대 기생충학)이었으며, 열두번째는 “대망을 침범한 인체 폐흡충증 1례”(한림의대 기생충학, 내과학 및 병리학)이었다.

열세번째는 “Sephadex G-200으로 분리한 폐흡충 성충 식염수 추출액의 단백질 분획상”(중앙의대 기생충학)인데, 폐흡충 생리식염수 추출액에 포함된 성분 단백질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었고, 열네번째는 “*Fibricola seoulensis*(Tre-

matoda : Diplostomatidae) 被囊幼蟲의 in Vitro, in Vivo 및 닭 漿尿膜에서의 發育 및 成長 比較”(인하의대 기생충학)이었다.

열다섯번째는 “Plagiorchis sp.의 인체감염 1례”(경상의대 기생충학 및 내과, 인하의대 기생충학)인데, Plagiorchis sp.의 국내 첫 인체감염례 보고이다.

열여섯번째는 Stictodora lari(Heterophyidae) : 실험감염 개와 고양이에서 획득한 成蟲의 形態(서울의대 및 경상의대 기생충학)인데, 우리나라에서 문질망둑을 중간숙주로서 S. lari의 생활사가 영위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열일곱번째는 “약물, 감마線 및 機械的 切斷이 스파르가눔의 生存 및 마우스 感染力에 미치는 영향”(인제의대 및 서울의대 기생충학)인데, 스파르가눔이 프라지판탈 용액, 감마선 조사 및 기계적 절단에 대하여 매우 저항성이 높으며, 불가사리한 생존력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열여덟번째는 “한국산 양서류의 기생충상 I. 산개구리(Rana temporaria ornativentris Werner)의 기생충상”(고려의대 기생충학)이었으며, 열아홉번째는 “경북지역에서 채집한 작은빨간집모기 성충 수명표의 특징”(계명의대 기생충학)이었다.

스무번째 연재 “京畿道 抱川郡 및 慶尙南道 鎭海市에서의 등줄쥐 寄生 털진드기相(Acarina : Trombiculidae)”(연세의대 및 경희의대 기생충학, 고려의대 미생물학)은 진드기류의 fauna에 관한 내용인데, 미생물학교실과 공동으로하는 쭉가무시병의 생태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마지막 연재는 “집 먼지진드기(house dust mites)의 生態學的 調查(第一報)”(경희의대 기생충학, 서울보건전문대)인데, 알려지웠으로서 소아천식 및 과민성 피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먼지진드기의 생태에 관한 기발한 착상의 연구로 생각되었다.

특별강연의 제목은 “韓國의 肺吸蟲症”이었다. 그런데 강연의 내용은 폐흡충 전반에 걸친 것이였다.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약 43종의 폐흡충이 보고되어 있다고 하였고, 그중에는 同種異名으로 생각되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하였고, Miyazaki(1982)를 인용하여 인체기생폐흡충을 8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폐흡충은 P. westermani를 비롯하여 P. iloktsuenensis, P. pulmonalis 등 3종이라고 하였고, 인체기생폐흡충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폐흡충증이라고 하면 어느 종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와같은 혼란을 막기 위하여 종명을 붙여 웨스텔만 폐흡충, 스크라빈 폐흡충 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학술발표회가 끝난 후 배를 타고 청평호수를 건너 청평사로 관광을 갔었다. 참가 인원도 적었고, 시간도 부족하였으며, 시내로 되돌아 오는 차량에 대한 배려도 되어 있지 않아서 뒷끝이 개운치는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번 춘계 학회를 무사히 치룰 수 있게 동분서주하시며 수고하신 학회임원 여러분과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의 허선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필자=인제의대 기생충학교실>